

제2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19년 2월 13일 (수) 오전 11시

## 제23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임시회) 식순

1. 개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개회사

1. 폐식

(사회 : 의사팀장 박현주)

## ○의사팀장 박현주

(11시 01분 개식)

지금부터 제23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제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이명원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제239회 임시회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해운대구의회는 우리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태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을 선임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인 반송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동서 불균형의 대명사인 반송의 변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내는 매우 뜻깊은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

## 2 (제239회-개회식)

가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견지하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지방 정부인 우리 해운대구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 내 불균형을 바로잡으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운대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소신 있게 나아가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기해년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이 넘치고,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박현주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폐식)